

미연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시사…경기회복 지원 초점

연합뉴스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혀… 연준은 오는 2023년까지 현행의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 성장률·실업률 전망치는 직전보다 개선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일정기간 물가가 목표치인 2%를 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평균물가안정 목표제를 명시

신용대출 막차 잡아라 이틀간 7,000억 급증

서울경제

5대 시중은행의 14~15일 이들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7,244억원 증가…하루 평균 3,622억원 늘어… 이는 신용대출이 사상 최대 증가액 기록한 8월보다도 1.8배 많은 규모 하루 평균 증가액이 54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 8~9월에 비하면 무려 7배 가까이 폭증…핀셋 규제 현실화를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

KB금융 차기 회장 최종후보에 윤종규…사실상 3연임 성공

연합뉴스

KB금융지주, 16일 윤 회장을 포함한 후보자 4명을 인터뷰하고 투표를 통해 윤 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오는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3연임에 성공 "코로나19과 같이 위기가 일상화한 시대에 KB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윤 회장이 조직을 3년간 더 이끌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시중은행 외화 확보 총력전에도 유동성 '제자리걸음'

데일리안

4대 은행 외화 자산 200조 육박… 올해만 20조 넘게 확대… 코로나19 금융 불안에 대응 나섰지만 건전성 개선 '난항' 올해 6월 조사 대상 은행들의 평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20.5%로 지난해 마지막 달(120.4%) 대비 0.1%포인트 오르는데 그쳐…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정보 한눈에…9월말 첫 통합공시

연합뉴스

금융그룹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공시 9월 말에 처음 실시… 복합금융그룹 중 비지주 금융그룹인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등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에 걸쳐 총 25개 항목이 그룹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

'코로나 직격탄' 보험설계사.."영업 규제 풀어달라"

이데일리

대면조건 완화했지만 여전히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 절차와 비교하면 여전히 복잡… '판매채널선진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대면영업 규제 완화를 건의 보험설계사 영업이 위축되면서 보험사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 보험설계사 의존도가 90%를 육박하고 있어, 설계사들의 영업이 곧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

서학개미 잡자 증권사 해외주식 투자자 유치 경쟁

연합뉴스

해외 주식투자 열기가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 이는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도 이어져… "국내 주식의 경우 비대면 매매 수수료가 사실상 무료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 주식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비용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거래소 "K-뉴딜지수, 뉴딜펀드 투자지표 아니다"

데일리안

한국거래소가 최근 논란이 제기된 'K-뉴딜지수'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서… 'K-뉴딜지수'가 뉴딜펀드의 투자지표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 "ETF와 같은 지수연계상품 상장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거래소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다양한 뉴딜지수 시리즈 중 하나로서 배타적 사용권을 배제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